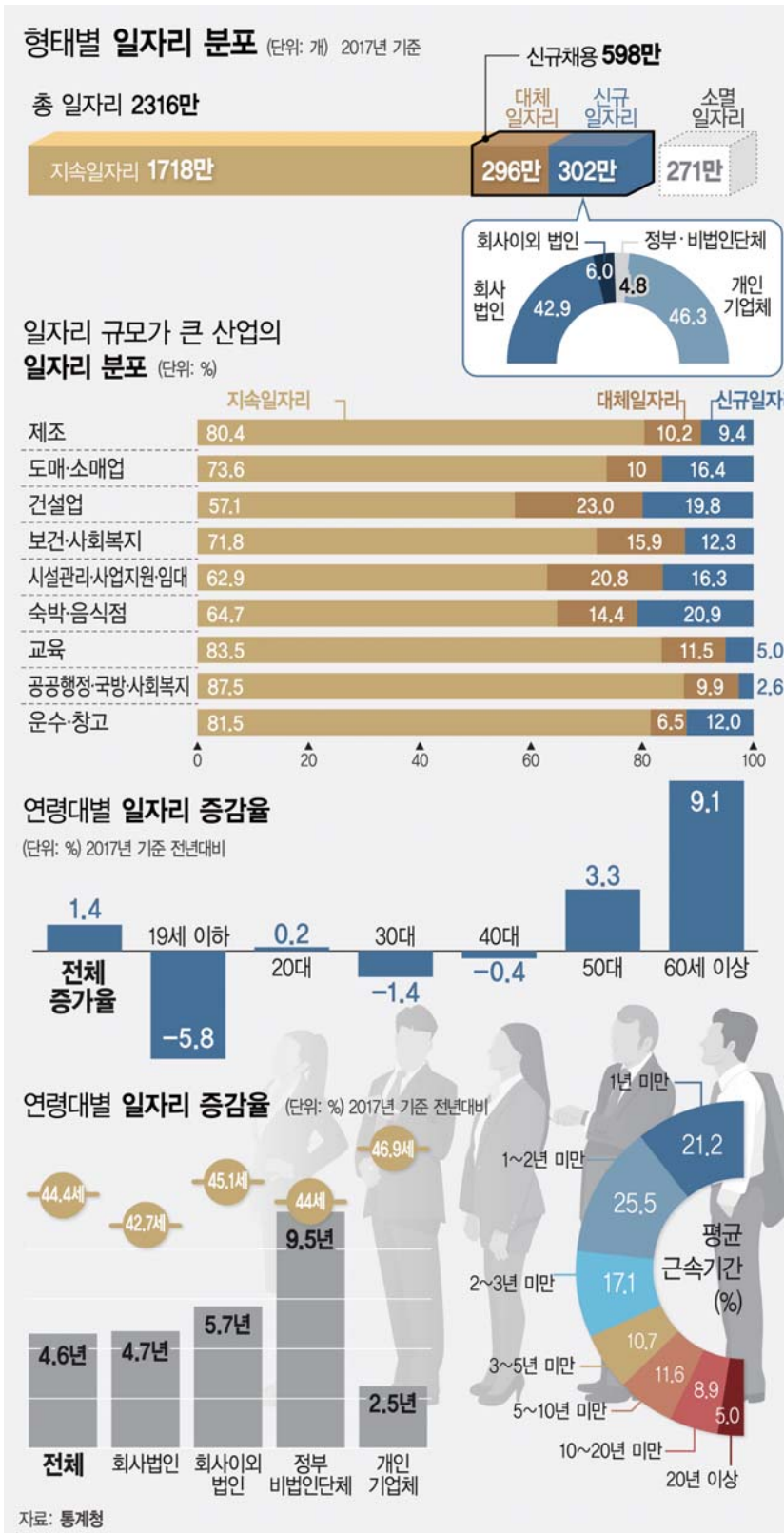


작년 '질 좋은' 대기업·제조업 사라져



통계청, 2017년 일자리 행정통계 결과 발표

지난해 우리나라 일자리 2316개...31만개↑

사라진 일자리 271만개...청년 일자리 악화

지난해 우리나라 일자리가 31만개 늘었다. 하지만 '질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는 대기업과 제조업 일자리가 대폭 줄고 불안정한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이라 점에서 일자리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통계청은 17일 발표한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일자리 수는 총 2316만개로 1년 전의 2285만개보다 31만개(1.4%) 증가했다.

지난해와 같은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가 1718만개(74.2%),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바뀐 '대체 일자리'는 296만개(12.8%)였다.

기업체가 설립되거나 사업이 확장돼 새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302만개(13.1%)였다.

신규 일자리는 개인 기업체가 140만개(46.3%)로 회사 법인(130만개·42.9%)보다 더 많이 제공했다. 신규 일자리의 83.1%(251만개)는 중소기업에서 나왔다.

반면 전체 일자리 중 회사법인 일자리는 48.2%로 가장 많았고, 개인 기업체 일자리는 31.5%였다.

영리기업에서 일자리의 79.6%(1844만개)를 제공했으며, 이중 중소기업 일자리는 80.7%(1488만개)나 됐다. 중소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일자리는 각각 16만개, 15만개 늘었지만 대기업 일자리는 2000개 줄었다.

산업별 일자리 규모는 양질의 일자리로 인식되는 제조업이 470만개(20.3%)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1년 전보다 7만개 줄어 20개 업종 중 일

자리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제조업 다음으로는 도·소매업 300만개(12.9%), 건설업 209만개(9.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192만개(8.3%) 등의 순이었다.

일자리 규모가 10만개 이상으로 큰 산업의 일자리 형태별 분포를 보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지속 일자리 비중이 87.5%로 가장 높았다. 숙박·음식점업은 신규 일자리의 비중이 20.9%로 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근로자 성별 일자리 규모는 20대까지는 비슷하나, 30대 이후는 남성이 점유한 일자리가 60.4%로 여성보다 많았다.

남성이 점유한 일자리는 1364만개(58.9%)로 여성(952만개·41.1%)의 1.4배 수준이다. 1년 전보다는 남성이 20만개(1.5%) 증가해 여성(11만개·1.1%)의 일자리 증가율보다 0.4%포인트 높았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50세 이상 인구의 일자리가 급증한 반면 청년세대 일자리 사정은 악화됐다.

전체 일자리의 72.0%(1688만개)를 30~50대가 점유하고 있었다. 40대가 26.4%로 가장 많았고 50대(22.9%), 30대(22.7%), 20대(14.2%), 60세 이상(12.9%), 19세 이하(0.9%) 순이었다.

전체 일자리 중 근속기간 3년 미만인 63.9%였고, 10년 이상은 13.8%를 차지했다.

기업규모별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비영리기업 7.8년, 대기업 7.4년, 중소기업 3.0년으로 나타났다.

경제 성장률 '2%대 후퇴' 현실로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한국 경제를 둘러싼 정부 시각이 한층 어두워진 것만은 분명하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각각 2.6~2.7% 레인지(등락범위)로 전망했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레인지로 제시한 것은 2005년 이후 14년 만인데, 이는 정부 내부에서도 경기 수준이 얼마나 더 둔화될지 명확히 가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고용과 분배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8만7000명 감소)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찍을 것이 확실시되는 데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올해 16.4%에 이어 다시 10.9% 오르기 때문에 정부의 일자리 확대 노력에도 고작 15만명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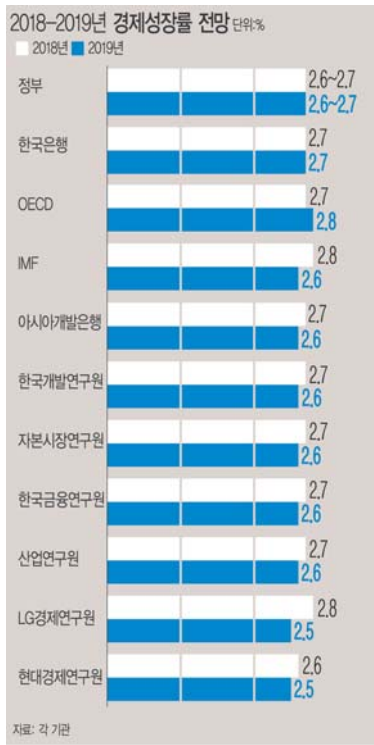
특히 임시·일용직과 같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부진은 더 심각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상위 20%(5분위) 가구 간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 지난 3분기 기준으로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1년 전보다 7.0% 감소했지만 5분위는 8.8% 늘었다.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분배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2배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던 2007년과 같았다.

여기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마지막 버팀목 수출마저 둔화 우려가 커졌다. 수출(통관) 증가율은 올해 6.1%, 내년에는 올해보다 3.0%포인트 둔화한 3.1%로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경제 운용의 결과도 신통찮다. 경제 회복 원인을 가계 소득 증대에 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는데 기업 활력 약화와 이에 대응으로 체감할 만한 혁신성장 성과는 내지 못했다. 오히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 일부 정책의 속도 조절 실패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부담만 키웠다.

그간 정부가 엄중한 경제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오만'하다는 지적 일색이었다. 운동 약재 투성이인 '정밀빛 전망'만 고수해온 탓이다.

일제강점기 국책·민간연구소들



은 2% 중·후반에 그칠 것이라 보고 전망해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2.6%)을 포함해 한국금융연구원(2.6%)·자본시장연구원(2.6%)·산업연구원(2.6%)·한국경제연구원(2.5%)·LG경제연구원(2.5%) 모두 내년 2%대 중반을 예상했다. 정부 전망치에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한국은행마저 2.7%로 한 발짝 물러났고, 한국경제연구원은 2.4%까지 내려잡았다.

문제는 2.6~2.7%로 낮춰잡은 전망치마저 낙관적으로 비친다는 점이다. 정부의 각종 부양정책 효과를 반영한 것인 만큼, 정책이 실패한다면 2% 중·후반 수준의 성장조차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도쿄상기회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의 정책 효과를 감안해 전망했으나 기본적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크다"며 "무엇보다 올 4분기 산업활동동향이 상당히 크리틱한 측면이 있고 이 숫자의 기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년까지 레인지로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개선·구조개혁에 안간힘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속도 조절에 실패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를 손보겠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정 지출 확대만으로는 성장 둔화 흐름을 막기 역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대책의 구체성을 높이고 참에 대해 이해 관계로 풀기 어려웠던 차관공유(카세어팅) 등을 조속히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뉴스스

'달고 시원한 맛 일품' 해남 콜라비 수확 한창

올 500t 생산 예상...기능성 건강채소로 인기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전남 해남의 들녘에서는 싱싱한 콜라비 수확이 한창이다.

해남군은 지난 2010년 시범재배에 들어간 콜라비의 재배면적이 점차 확대돼 올해는 12ha에 이르면서 500t 이상의 생산이 기대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처럼 식감과 달고 시원한 맛이

일품인 콜라비는 저열량에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아미노산 등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다이어트 등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유지하는 칼륨과 칼슘 성분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을 위한 기능성 건강채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해남 콜라비는 재배농가들이 콜

라비 작목반을 결성, 맛과 당도, 식감이 우수한 품종을 선발하고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고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미산면 외호리 이기봉(43)씨는 "해남 황토에서 키운 콜라비는 당도가 높고 맛이 뛰어나 직거래로 대부분 물량이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며 "현재 10kg 한박스에 2만5000원선으로 소득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콜라비는 12월 수확해 2월



까지 저장 출하되며, 생식은 물론 각종 샐러드와 즙, 무침 요리 등에 이용된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